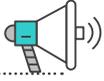


2018년 서울지역본부의
사업번창 및 무사고를 위한

안전기원제 개최

글_서울지역본부 건강진단팀 남서영 차장





2018년 3월 6일(화), 서울지역본부에서는 환경개선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과 건강진단팀 버스 구입, 보건관리대행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안전지원제가 열렸다. 이 자리에는 협회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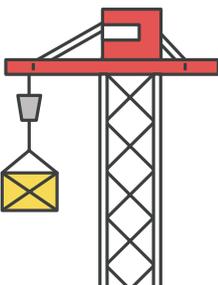
먼저 주차장에서 건강진단 버스에 대한 안전 지원제가 진행됐으며, 이후 오후 5시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고사의식이 시작됐다. 축문이 낭독 되고 각 팀의 분향과 제례, 축문을 불사르는 소지(燒紙)가 이어졌다.

서울지역본부의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은 지난 1월 4일부터 시작됐다. 임대형 아파트 공장으로 오래된 건물 외부에 간판을 부착시켰고, 내부에 들어서서 보건협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찰을 곳곳에 부착했다. 어두웠던 복도는 깔끔히 단장됐으며, 분리돼 있던 행정 파트를 하나의 사무실 안으로 통합하므로 업무 효율을 높였다. 산업보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해 수검자가 대기할 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했고, 작은 휴식공간도 만들어 설 수 있도록 했다.

한층 밝아진 공간이 수검자뿐 아니라 업무에 임하는 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을 기대하며 '사업번창과 무사안녕, 서울지역본부 대망의 한 해'를 소망하는 안전지원제가 무사히 마무리됐다. 🐾



▲ 안전지원제를 지낸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
▲ 리모델링 후 새로 마련한 휴식공간



▲ 무사고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안전지원제를 지냈다